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2019.9.18. 9:30
디캠프

모 두 발 언

2019. 9. 18.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융산업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금융회사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해주시는
혁신금융심사위원님, 유관기관 참석자께도 감사드립니다.

KIC와 수출입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핀테크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인상깊게 지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열정과 도전,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등 전임 금융위원장님의
애정과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펼쳐갈 핀테크 정책에
현장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I. 핀테크 정책에 대한 평가

그간 숨가쁘게 이어져 온
핀테크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부도 같이 호흡하면서
쉽 없이 달려 왔다고 평가해 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저변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는 간편결제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앱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핀테크의 잠재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기 보다는
핀테크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아가,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핀테크 업체 중 유니콘 기업은 1곳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선도업체의 출현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IC 사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경험하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의 성공에는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글로벌 시장확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국내 핀테크 업계의 투자유치에 대한 갈증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의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Ⅲ. 핀테크 스케일업 방향

‘핀테크 스케일업, 금융이 바뀐다’

향후 정부의 핀테크 정책방향을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그리고 해외진출이 핵심입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개선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동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분야로 투자의 물꼬도 트고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가칭)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계획(성장금융)

- ▶ 은행권, 핀테크 유관기관 출자 및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창업 및 성장 단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예정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회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IPO, M&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장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스타트업들의 용기있는 도전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석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10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을 완성하겠습니다.

IV. 맺음말

저는 9월 9일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금융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안정과 균형을 발판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혁신의 길을 선도해서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는 ‘안정’ 분야 현장방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드렸습니다.

오늘은 ‘혁신’을 위한 첫 일정으로 최우선하여
핀테크 업계와 관계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한 사항 중의 하나가
현장과의 소통에 경청(傾聽)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